



2020년 콜린스 추기경의 관리직에 관한 강론

제가 언제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역사상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위대한 통치자인 로렌조 메디시입니다. 그 분은 역사상 로렌조 일 마그니피코, 위대한 로렌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좋은 별명이 아닐까요? 위대한 분! 그분은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에 너그러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그 분은 결코 가장 적게 하셨던 것이 없습니다; 그 분은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 분은 삶이라는 바다에 발가락만 살짝 담근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통치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이 보여주셨던 절대적 너그러움, 풍요로움과 위대함의 정신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주 적은 양의 자비를 재고 분배하면서 베푸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 하느님 그 자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축복속에서 언제나 넘쳐흐르는 너그러움과 위대함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가서 똑같이 하라는 명령이며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주 하느님 그 자신의 너그러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미사 복음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 20장 1절-16a).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합니다. 아침 일찍 처음에 고용된 사람들은 합당한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루 종일 또 다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일이 끝나기 전 막판에, 사람들을 더 불렀습니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라고 고용된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좁은 마음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처음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대체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퇴약별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닌가요?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왜 우리처럼 똑같은 품삯을 받았나요?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우면 안 되나요?

사실 처음부터 일한 화난 일꾼의 관점이 아니라 너그러운 주인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주인이, 받을 자격이 없는 제일 마지막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너그러움을 베풀겠다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구원의 역사에 뒤늦게 나왔지만, 수백 년 동안 자비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받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메시지의 일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주로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가 복음 15장 11절- 32절) 와 매우 유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단지 자신이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한없이 너그러운 아버지 앞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화가 난 첫째 아들은,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서 본 처음 고용된 일꾼처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형은,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위대함과 너그러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중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 1독서 (55장 6절- 9절)에서 이사야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라고 말하셨듯,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잘 깨닫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에 대한 신비를 깊이 들어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막판에 일을 하라고 고용된 사람들처럼 받을 자격은 없지만, 과분하게 많은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도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 하느님의 위대한 너그러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분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분의 창조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받은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너그러운 마음과 위대한 정신을 보여주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주인만큼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보여주시는 너그러움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그것은 마태 복음 (25장 14절- 30절) 거의 마지막에 하신 비유에서와 같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선물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며 열매를 충만하게 맺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여러 명의 하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선물과 재능을 나눠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대함과 창의력을 통해서 그것을 충만하게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종은 그 주인의 창의적인 정신을 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사람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4장 1절)로써, 하느님의 선물을 관리하라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운 주인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들을, 너그럽게, 창의적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잘 사용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대교구가 관리직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번 주 일요일에 특히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근본적인 기질,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하고 많은 선물들에 대해 감사드리는 관리인이 되는 것에 관해 깊이 숙고하라는 요청을 받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저런 재능을 받습니다 - 그 점에서 우리는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 각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주인이 주시는 너무도 많은 선물들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다면, 경이롭고 자비로우신 주인의 손으로부터 받는 방식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풍성한 선물로 축복을 받았지만, 자주 이 선물들이 잘 사용되지 못하고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인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을 알아보고, 그 선물을 자비롭고 충만하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

주님께서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막판에 조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이 너그럽게 베푸신 재능과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넘치도록 굉장히 많이 받았습시다. 그리고 받은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만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너그럽고 충만하고 위대하신 좋으신 하느님의 관리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관리인식은 우리가 그저 참석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심오한 태도이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닮고, 훌륭하게 자비롭게 충만하게 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에 깊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을 생각하고 본당 공동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선물이 있나요? 만일 우리들이 모두 이 선물들을, 그저 땅에 묻어 두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봅시다. 저 공동체를 보세요. 진정 하느님의 선물로 가득 차 있어요!”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비유를 반영하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묻어 두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창의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선물을 풍성하게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심이 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선물을 받았고, 받은 이 선물들을 잘 사용하도록 불림을 받았습시다.

또한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재능에 대한 비유의 끝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말한 이 선물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용했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 버렸습시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각각 준 선물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하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 심오하게 성서적이고 심오하게 영적이며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복음의 가장 중심인, 관리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일요일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위대하심 그 자체라는 힌트와 함께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너그럽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분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너그럽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우리 각자가 받은 특별한 선물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재화들에 집착하지 않고 너그럽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너그러우며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좀 더 충실해질 것입니다.

선하시며 자애롭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관리하는 이 신성한 임무에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